

“위험관리정보”의 발간에 붙여

1980년부터 방재와 관련한 각종 최신자료 등을 번역·편집하여 발간하여 오던 “방화정보”는 제67호를 끝으로 “위험관리정보”로 그 제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방화정보”는 당시 방재에 대한 기술보급이 충분하지 못한 여건속에서 협회 직원에게 기술향상을 위한 국내·외의 신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후, 1992년의 제64호부터는 배포범위를 넓혀 특수건물중 대형물건의 관계인과 손해보험회사의 위험관리팀, 관계기관 및 협회부설 방재시험연구소의 정보회원에게 배포함으로써 방재관련 정보의 보급에 힘써 왔습니다.

그동안 방재실무의 전문지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며, 그 기여에 적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다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분야에 접근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제호를 “위험관리정보”로 개칭하고, 내용면에서도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험관리”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30년대 미국에서의 대공황기에 기업에서 보험의 효과적인 이용을 중요시하는 보험관리로서 탄생하여 디플레이션하에서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보험비용절감, 즉 어떻게 하면 보험료 지출을 억제하여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보험처리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한편 “위험관리”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70년대 초기로서 벌써 20년이 지났으나 경영으로서의 “위험관리”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험관리”의 이용목적은 기업이 표방하는 목표, 다시 말해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대량생산과 판매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꾀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안정과 장기적 존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손해의 극소화”를 지향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고도산업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위험의 요소도 다양하게 변모되었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기업의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위험을 발견하여 분석하고, 처리수단을 선택하여 위험처리 계획을 실행한 뒤 그 결과를 검토하는 위험관리의 일반적인 과정에서 제반 위험에 대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손해의 극소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위험관리정보”가 적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험관리정보”의 발간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